국제유가, Super-Spike 우려된다!

Goldman Sachs, 4년간 상승추세 지속 … 2006년 WTI 평균 68달러

Goldman Sachs는 국제유가가 이른바 Super-Spike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4년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12월13일(현지시간)자 글로벌투자보고서를 통해 석유 수요가 여전히 탄력적인 반면 공급증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2006년 미국의 원유가격을 배럴당 평균 68달러로 제시했다.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2005년 배럴당 평균 57달러로 앞으로 4-5년간 이어질 유가 급등기인 슈퍼-스파이크의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슈퍼-스파이크가 진전되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폭등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치솟았었다.

유가 비관론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확대 여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OPEC이 적절한 시기에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도전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슈퍼-스파이크 진입을 확신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5달러까지 치솟기 2005년 3월 처음으로 슈퍼-스파이크 진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12/15>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